

##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과 청소년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김석환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조교수

###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ewing sensational videos of idol stars and adolescent sexual openness

Kim Seok Hwa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ewing of sensational videos of idol stars through the mass media and the sexual openness of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 commodification of adolescents through mass media in the smart era'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4 for the entire country as the main data. Variables consisted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ideo viewing, social support, and sexual openness. For data analysis, SPSS ver 23.0 program was used.

**Result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averages, male students (20.40) had higher sexual openness than female students (18.67), and high school students (20.27) had higher sexual opennes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18.05) at school level. By grade level, sexual openness increased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17.47) to the third year of high school (20.82) ( $p < 0.001$ ).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video viewing on the effect of adolescent social support on sexual openness, 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conducted. As a result, video view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xual openness through social support ( $p < 0.001$ ).

---

\* 본 연구는 2022년 동국대학교 토대연구지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접수일: 2022년 10월 27일, 수정일: 2022년 11월 16일, 채택일: 2022년 11월 16

교신저자: 김석환(38066,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Tel: 054-770-2975, Fax: 054-770-2978, E-mail: rabbitear7@hanmail.net

**Conclusion:** Rather than obscuring the environment of mass media unconditionally, creating an atmosphere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realistic social support and reinforcing emotional education will help prevent the adverse effects of reckless sexualization of adolescents.

**Key words:** mass media, health education, viewing sensational videos of idol stars, sexual openness, youth, social support

## I. 서론

스마트폰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가지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여가생활에 활용하고, 비대면으로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다(Bian & Leung, 2015). 이에 반해 과다 이용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으나 스마트폰을 통한 선정적인 영상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문제시되고 있다(김석환, 2016). 통신의 향상으로 미디어(media)들을 통하여 프로그램 영상물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노출이나 자극적인 성행동 이미지 표현이 늘어났고, 이런 추세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 행동을 부추기기도 한다(변화순 등, 2004).

청소년은 주로 K-POP 중 아이돌 스타의 음원과 영상을 자주 접하고, 그들의 눈부신 안무와 활동을 좋아한다(선승주, 2015). 미디어의 높은 접근성으로 대중음악 시장에는 아이돌 스타의 양적 팽창(김진아, 2011)이 되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돌 스타들은 팬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 선정적인 음악, 가사, 의상, 댄스 등을 선보이게 되었다(김진아, 2011). 가슴, 둔부, 서혜부(鼠蹊部) 등 체형을 드러내는 의상은 보편화되었고, 청소년들은 이런 옷을 걸치고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댄스를 선보이는 아이돌 스타에게 광열하며, '보이는' 미디어를 통하여 성(性)상품화 사고방식을 자연스레 익힌다.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이 설치된 세상에서 성(性)이 소비상품으로 부패하여 사회의 그릇된 상품으로 자리하였다(김지선 등, 2011).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채로 '보는' 미디어를 통해 상품화된

대상자에게 청소년은 인권침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性)상품화에 동조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김지선 등, 2011).

청소년들은 대개 여가시간을 미디어와 같이 지내는 실상에 기반하여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쟁과 연구가 이루어져왔다(Lemola S et al., 2015). 청소년은 맹목적으로 영상물을 접하게 되면, 부정적인 성의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잘못된 개념이 발생하고, 더 심각한 점은 어른이 되어서도 성개방성이 불안정적이라는 것이다(Peter & Valkenburg, 2007).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성개방성과 미디어와의 관계를 연구(Liu et al., 2021)에 따르면, 영상물에 드러난 청소년들은 외도 또는 혼인 전 성관계 등의 부도덕에 개방적이었다. 게다가 미디어를 통한 영상물이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의식에 영향을 미쳐, 이성과의 만남에서 성폭행 또는 간통 등의 성태도(심재웅과 조의진, 2009)가 나타났고, 성행위 촬영(김석환, 2016)까지 시도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올려주고(Liu et al., 2021), 성행동에 보호적 역할을 한다(Bruederle et al., 2019).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성행동 뿐만 아니라 성비행에도 예방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과 청소년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수행한 '스마트시대 대중 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샘플링은 2014년 6월 12일 ~ 7월 15일에 설문 한 대한민국의 청소년 3,176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 매개변수는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사회적 지지)로 하였고,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성개방성으로 설정하였다.

#### 1) 통제변수 : 사회·인구학적 특성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여학생, 남학생), 학교급(중학생, 고등학생), 학년(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하였다.

#### 2) 독립변수 :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자극, 인권침해, 모방/공유)

독립변수인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에 대한 문항은 17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선미와 정태연, 2005).

첫 번째 요인인 '자극'은 '선정적인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 '선정적인 영상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요인인 '인권침해'는 '돈을 벌기 위해 노

출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와 마찬가지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요인인 '모방/공유'는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변수의 점수 구간은 17점~85점이고, 각 요인의 합이 증가할수록 '자극', '인권침해', '모방/공유'의 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자극이 0.843, 인권침해가 0.761, 모방/공유가 0.687이었다.

#### 3) 매개변수 :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 (=사회적 지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문항은 2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나의 부모님께서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매개변수의 점수 구간은 2점~10점이고, 점수의 합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0.773이었다.

#### 4) 종속변수 : 청소년의 성개방성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성개방성에 대한 문항은 8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백혜정과 김은정, 2008).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수의 점수 구간은 8점~40점이고, 점수의 합이 증가할수록 성개방성의 정도가 증가함을 의미

한다. Cronbach's alpha는 0.731이었다.

###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PC+Version 27.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고, 청소년이 지각한 영상물 시청과 사회적 지지가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영상물 시청과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Sobel, 1982)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 비교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 학년에 대한 빈도와 성개방성 점수를 보면, <Table 1>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였지만, 성개방성은 여학생(18.67)보다 남학생(20.40)이 높았다( $p < 0.001$ ). 학교급으로는 중학생(34.3%)보다 고등학생(65.7%)이 많았으며, 성개방성은 고등학생(20.27)이 중학생(18.05)보다 높았다( $p < 0.001$ ). 마지막으로,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교 3학년(23.2%)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1학년(17.47)에서 고등학교 3학년(20.82)으로 올라갈수록 성개방성이 높았다( $p < 0.001$ ).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 비교

|     |          |             |       |       |        | (N=3,176) |
|-----|----------|-------------|-------|-------|--------|-----------|
|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성별  | 여학생      | 1,632(51.4) | 18.67 | 3.822 | -11.09 | 0.000     |
|     | 남학생      | 1,544(48.6) | 20.40 | 4.921 |        |           |
| 학교급 | 중학생      | 1,089(34.3) | 18.05 | 4.290 | -13.68 | 0.000     |
|     | 고등학생     | 2,087(65.7) | 20.27 | 4.378 |        |           |
| 학년  | 중학교 1학년  | 328(10.3)   | 17.47 | 4.663 | 43.80  | 0.000     |
|     | 중학교 2학년  | 344(10.8)   | 18.05 | 4.030 |        |           |
|     | 중학교 3학년  | 417(13.1)   | 18.51 | 4.145 |        |           |
|     | 고등학교 1학년 | 682(21.5)   | 19.83 | 4.675 |        |           |
|     | 고등학교 2학년 | 667(21.0)   | 20.12 | 4.170 |        |           |
|     | 고등학교 3학년 | 738(23.2)   | 20.82 | 4.225 |        |           |

T/F; T-test or ANOVA; scheffe

### 2. 영상물 시청과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영상물 시청(자극, 인권침해, 모방/공유)과 청소년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2>. 자극과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두 번째 단계의 표준회귀계수( $\beta=0.222$ )보다 세 번째 단계의 표준회귀계수가 줄어들었고( $\beta=0.172$ ), 자극 단독으로는 설명력이 9.8%( $F=323.893$ ,  $p < 0.001$ ),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는 18.4%( $F=335.291$ ,

$p<0.001$ )로 설명력이 8.6% 증가하였다. 인권침해와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두 번째 단계의 표준회귀계수( $\beta=-0.307$ )보다 세 번째 단계의 표준회귀계수가 증가하였고( $\beta=-0.194$ ), 인권침해 단독으로는 설명력이 6.2%( $F=196.786$ ,  $p<0.001$ ),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는 15.1%( $F=264.136$ ,  $p<0.001$ )로 설명력이 8.9% 증가하였다. 모방/공유와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두 번째 단계의 표준회귀계수( $\beta=0.303$ )보다 세 번째 단계의 표준회귀계수가 증가하였고( $\beta=0.183$ ), 모방/공유 단독으로는 설명력이 6.4%( $F=203.748$ ,  $p<0.001$ ),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는 14.9%( $F=260.336$ ,  $p<0.001$ )로 설명력이 8.9% 증가하였다.

정리를 하자면, 자극이 1만큼 증가할 때 성개방성은 0.222 증가하며, 설명력은 9.8%이다. 자극과 사

회적 지지가 1만큼 증가할 때 자극에 의한 성개방성은 0.172 증가하고 사회적 지지에 의한 성개방성은 0.747 증가하며, 설명력은 18.4%이다. 그리고, 인권침해가 1만큼 증가할 때 성개방성은 0.307 감소하며, 설명력은 6.2%이다. 인권침해와 사회적 지지가 1만큼 증가할 때 인권침해에 의한 성개방성은 0.194 감소하고 사회적 지지에 의한 성개방성은 0.773 증가하며, 설명력은 15.1%이다. 또한, 모방/공유가 1만큼 증가할 때 성개방성은 0.303 증가하며, 설명력은 6.4%이다. 모방/공유와 사회적 지지가 1만큼 증가할 때 모방/공유에 의한 성개방성은 0.183 증가하고 사회적 지지에 의한 성개방성은 0.764 증가하며, 설명력은 14.9%이다. 그러므로, 영상물 시청(자극, 인권침해, 모방/공유)은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면 성개방성이 감소하며 사회적 지지에 의한 성개방성은 증가하고 설명력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영상물 시청과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예측변인                 | 종속변인   | B      | t       | p     | R <sup>2</sup> | F       |
|----------------------|--------|--------|---------|-------|----------------|---------|
| 1단계(단순회귀분석)<br>자극    | 사회적 지지 | 0.066  | 13.066  | 0.000 | 0.054          | 170.727 |
| 2단계(단순회귀분석)<br>자극    | 성개방성   | 0.222  | 17.997  | 0.000 | 0.098          | 323.893 |
| 3단계(다중회귀분석)<br>자극    | 성개방성   | 0.172  | 14.273  | 0.000 | 0.184          | 335.291 |
| 사회적 지지               |        | 0.747  | 17.683  | 0.000 |                |         |
| 1단계(단순회귀분석)<br>인권침해  | 사회적 지지 | -0.145 | -16.705 | 0.000 | 0.086          | 279.050 |
| 2단계(단순회귀분석)<br>인권침해  | 성개방성   | -0.307 | -14.028 | 0.000 | 0.062          | 196.786 |
| 3단계(다중회귀분석)<br>인권침해  | 성개방성   | -0.194 | -0.158  | 0.000 | 0.151          | 264.136 |
| 사회적 지지               |        | 0.773  | 0.312   | 0.000 |                |         |
| 1단계(단순회귀분석)<br>모방/공유 | 사회적 지지 | 0.157  | 18.757  | 0.000 | 0.106          | 351.814 |
| 2단계(단순회귀분석)<br>모방/공유 | 성개방성   | 0.303  | 14.274  | 0.000 | 0.064          | 203.748 |
| 3단계(다중회귀분석)<br>모방/공유 | 성개방성   | 0.183  | 8.547   | 0.000 | 0.149          | 260.336 |
| 사회적 지지               |        | 0.764  | 17.223  | 0.000 |                |         |

### 3. 아이돌 스타의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과 청소년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Sobel Test)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3>. Sobel test에서 a, b 추정치를 통해 구한 Z값은

11.19, -4.86, 14.38로서 -1.96이하 +1.96이상의 구간(영가설 기각)에 속하므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Baron, Kenny, 1986). 이는 영상물 시청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성향에 따라 영상물 시청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켜 보다 양호한 성개방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영상물 시청과 성개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Sobel Test)

| 경로                                    |                 | Z           | P-value |
|---------------------------------------|-----------------|-------------|---------|
| 자극                                    | → 사회적 지지 → 성개방성 | 11.19697653 | 0.000   |
| a=0.066, Sa=0.005, b=0.888, Sb=0.042  |                 |             |         |
| 인권침해                                  | → 사회적 지지 → 성개방성 | -4.86578922 | 0.008   |
| a=-0.045, Sa=0.009, b=0.888, Sb=0.042 |                 |             |         |
| 모방/공유                                 | → 사회적 지지 → 성개방성 | 14.38366809 | 0.000   |
| a=0.157, Sa=0.008, b=0.888, Sb=0.042  |                 |             |         |

## IV. 논의

이 연구는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과 청소년의 성개방성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소년 3,176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성개방성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상물 시청과 성개방성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영상물 시청(자극, 인권침해, 모방/공유)은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면 성개방성이 줄어들고, 사회적 지지는 성개방성을 증가시켰다. Riggs & Rasmussen(2021)는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밀접함을 주장하였고, Valkenburg et al.(2011)는 영상물에 의해 심한 자극을 받을수록 청

소년의 성의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영상물을 보고 모방하거나 공유하는 청소년의 모습에 주위(또래나 부모 등)의 반응이 긍정적(김운정과 이창식, 2005)이거나, 감성적일수록 무분별한 청소년의 성개방성을 완화(Somers, Paulson, 2000)시킬 수 있으며, 성의식에 보호요인(Bruederle et al., 2019)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평소에 보는 영상물 시청의 내용이 부정적이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성향이 낙관적이거나 정서적이라면, 스스로 성의식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래나 부모 등 사회적 지지의 성향에 따라 청소년의 성개방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영상물을 보고 모방하는 모습에 성원을 받은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상물 시청 후 자극을 받거나 모방/공유를 할수록, 인권침해를 받지 않을수록 성개방성이 높

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자극을 받거나 모방을 할수록 인권침해를 받지 않을수록 높아졌던 성개방성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성개방성은 긍정적으로 증가하여 부모나 또래 등 사회적 지지의 기질에 따라 성개방성이 다르게 변화 될 수도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첫째, 미디어 개발 및 공급자는 청소년의 정서를 고려하여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등을 유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물과 관련한 규정을 보강하는 등 실천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기관 및 가정은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보건의교육을 청소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차후 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삼아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추적하여 세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는 변수를 추가해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샘플링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높을 수 있는 점을 이 연구의 함의로 하고자 한다.

## V. 결론

이 연구는 아이돌 스타를 촬영한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과 청소년의 성개방성과의 관계에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개방성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상물 시청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청소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영상물 등 대중매체의 환경을 에워싸기보다는 현실적인 사회적 지지의 성향에 따른 분위기 조성 및 정서적인 교육을 강화하면, 무분별한 청소년의 성개방화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1. 김석환. (2016).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행동 촬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7(2), 71-81.
2. 김윤정, 이창식. (2005). 부모의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2), 250-268.
3. 김진아. 아이돌 중심 대중음악시장의 한계에 관한 연구: 아이돌 가수 탄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언론 대학원, 2011.
4. 변화순, 백경진, 이재금, 임미영, 전남숙, 정체유. (2004).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모형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5. 선승주. 아이돌 연예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05):85-87.
6. 신선미, 정태연. (2005). 성 상품화에 대한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603-617.
7. 심재용, 조의진. (2009). 다매체·다채널 미디어 환경에서 바람직한 청소년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성콘텐츠 이용과 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1), 79-118.
8. Baron RM, Kenny D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9. Bian M, & Leung L. (2015). Linking loneliness, shyness,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and patterns of smartphone use to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1), 61-79. <https://doi.org/10.1177/08944393145287>
  10. Bruederle A, Delany-Moretlwe S, Mmari K, Brahmbhatt H. (2019). Social Support and Its Effects on Adolescent Sexual Risk Taking: A Look at Vulnerable Populations in Baltimore and Johannesbur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4(1), 56-62. doi: 10.1016/j.jadohealth.2018.07.004
  11. Bryant J, Rockwell SC. (1994). Effects of massive exposure to sexually oriented prime-time television programming on adolescents' moral judgment. In: *Media, Children, and The Family: Social Scientific, Psychodynamic, and Clinical Perspectives*, 183-195.
  12. Giles DC, Maltby J. (2004). The role of media figures in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 between autonomy, attachment, and interest in celebr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4), 813-822. [https://doi.org/10.1016/S0191-8869\(03\)00154-5](https://doi.org/10.1016/S0191-8869(03)00154-5)
  13. Lemola S, Perkinson-Gloor N, Brand S, Dewald-Kaufmann JF, Grob A. (2015). Adolescents' electronic media use at night,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smartphone 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2), 405-18. <https://doi.org/10.1007/s10964-014-0176-x>
  14. Liu Q, Jiang M, Li S, Yang Y. (2021).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self-esteem protect against common mental health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A nonrecursive analysis from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Medicine (Baltimore)*, 100(4), e24334. <https://doi.org/10.1097/MD.00000000000024334>
  15. Riggs RE, Rasmussen EE. (2021). The Influence of Video-Modeled Sexual Assault Disclosure and Self-Efficacy Messages on Sexual Assault Disclosure Efficacy of Adolescent Girl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6(6), 361-370. <https://doi.org/10.1080/10810730.2021.1943729>
  16. Sobel M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https://doi.org/10.2307/270723>
  17. Somers CL, Paulson SE. (2000).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adolescent closeness and 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relations with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3(5), 629-644. <https://doi.org/10.1006/jado.2000.0349>
  18. Valkenburg PM, Sc M, Peter J. (2011). Online Communication Among Adolescents: An Integrated Model of Its Attraction, Opportunities, and Risk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2), 121-127.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0.08.020>